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 — 두보의 한시 「春望」(춘망)의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

이 형 진
(숙명여대)

1. 시 번역의 난해함과 번역 불가능성

세계문학사에서 시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상을 누려왔다. 시의 절대적 위상을 설명하는 여러 근거들 중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가 문학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만큼이나 근원적인 것은 없다. 서구문학의 기원으로 알려진, 기원전 700년경 호메로스의 「일리아드」(*Iliad*)나 「오디세이」(*Odyssey*)도 서사시였으며,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2,000년경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기원한,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길가메시」(*Gilgamesh*) 역시 대표적인 서사시였다. 이 같은 문학의 기원은 인류의 문화자산에서 차지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1403-0167).

** 본 논문은 한국번역학회 2015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함.

하는 시의 위상과 가치를 재확인시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학에서 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장르로 인식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운율성, 함축성, 간결성, 상징성, 다의성과 같은 시의 미학적 특징들은 시를 다른 문학 장르와 구분지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독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19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1명의 수상자 중에서 65명이 소설가인 반면, 시인은 28명에 불과하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5년간의 수상자 명단을 보면 2000년 수상자 가오싱젠을 소설가가 아닌 극작가로 분류하더라도, 2005년 수상자인 극작가 핀터만 제외하면 시인은 2011년 수상자인 스웨덴 출신의 트란스트뢰메르 한 명뿐이며, 나머지 12명은 모두 소설가라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가지고 세계문학 주류의 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21세기는 소설의 전성시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 근거는 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출판 시장에서 시집 판매량이 1/3로 줄어든 현실 또한, 분명 ‘달라진’ 독자와 ‘무너진’ 시장을 대변하면서(이운주 2010: 15), 오늘날 시가 독자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이처럼 시가 독자와 출판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현대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난해함을 들 수 있다. 비유나 상징을 통해 일상적 언어 체계를 초월하는 시의 특수성이나, 엠프슨이 주장한 난해성의 또 다른 개념인 ‘모호성’외에도, ‘도피적 상상력’이라는 은유적 정의 속에서 파생되는 ‘새로움’이나 ‘낯설음’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장의 일상적인 연결고리의 의도적인 생략과 같은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현대시의 난해함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김성조 2012: 140-141).

더욱이 이 같은 난해함은 ‘시’라는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태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시(poem)의 어원은 ‘제작, 창작’(making)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의 ‘poiesis’이다. 이는 원래 자연적인 것의 제작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이후 시(poetry)는 ‘말을 만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좁혀져 왔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287). 이 같은 시의 탄생 배경은 시의 근원적인 특징과 이로 인해 수반되는 내재적 난해함을 설명해준다.

즉, 고대 시의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만들어냄’(making)이라는 차원

에서 시가 가지는 창조성은, 시인의 기원이라고도 간주되는 고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부여된 신탁의 역할, 즉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초월성과, 세상을 창조하고 언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절대성의 가치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것은 어쩌면 일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초월성과, 불변의 진리라는 절대성의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관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일상의 틀과 시각에서 벗어나서 불변의 근원적 진리를 읽어내는 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의 난해함은 시 읽기의 난해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시 번역의 난해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의 난해함은 문학번역에 관한 연구영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재현된다. 국내에서 문학번역과 관련된 연구결과물이 많이 발표되는 학술지 「번역학연구」에 실린 지난 10년간(2005-2014)의 논문 395편중에서, 소설 관련 논문은 65편이지만 시를 다룬 논문은 고작 9편밖에 되지 않는다.¹⁾ 이처럼 문학번역 연구에서도 시 번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시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출발어 시 텍스트에 대한 단일한 해석이나 분석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시 번역 연구들이 대체로 오역논의나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번역 불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번역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다양한 실험적 번역의 시도를 이끌어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출발어 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재번역과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텍스트에 생명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문학텍스트의 번역불가능성이 그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즉, 하나의 텍스트를 완전하게 번역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번역의 지속적 생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황현산 2000).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텍스트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은 사라진다는 점에서 출발어텍스트가 죽은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다수의 번역본의 존재유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설

1) 시와 관련된 「번역학연구」 9편의 논문 중에서 최근 5년간의 논문으로는, 15(4) (2014년 10월)에 실린 Ying Cui와 Jilin Sun의 ‘Presentation of Poetic Space in Chinese Classical Poetry and its English Translation: A Case Study’와 12(1) (2011년 3월)에 실린 정경은의 ‘해방 전 교지 소재 서구 번역시의 특징 고찰’ 두 편뿐이다.

이나 희곡은 웬만큼 고전작품 아니면 번역본은 고작해야 한두 편 정도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비해, 시는 길이가 짧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한 번에 쉽게 읽히지 않고, 난해하며, 시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도 번역본의 숫자나 종류가 훨씬 많고, 이 같은 다양한 번역본이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시 번역의 ‘불가능성’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가능성’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본 논문은, 시 번역의 다양한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면서 각각의 결과물의 개별적 특징과, 번역과정에서 특정한 선택을 내리게 된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를 통해 시 번역의 가능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보 시대 최고의 서정시라는 평가를 받으며(이영주 2012: 44) 서구문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두보의 대표시 「春望」(춘망)의 영어 번역 네 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김소월 시인의 번역 「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두보의 「춘망」은 이미 수십 종의 영어 번역본이 나와 있을 만큼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 한시가 영어로 번역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이 같은 맥락 속에서 문화번역의 결과물로서 두보의 한시가 영어권에서 수용되고 정전화되는 과정을 네 편의 대표적인 영어번역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개별 번역이 직면하고 있는 시 번역의 ‘불가능성’을, 다양한 해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번역텍스트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 번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중국 한시의 영어번역 전통

중국 한시의 영어번역 역사는 중국문학에 대한 유럽적 수용의 역사이기도 하다. 19세기 말 중국문학의 유럽 수용 초기 중국문학의 대표적인 영어번역가로는, 중국 주재 영국 외교관 출신이며,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를 역임한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나, 허버트 자일스(Herbert Giles)²⁾외에도,

2) 토마스 웨이드(Thomas Wade)는 중국 주재 영국 외교관 출신으로 1867년 영어권에서 최초로 영어로 된 중국어 학습교재를 출판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중국어과 초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허버트 자일스(Herbert Giles) 역시 영국 외교관 출신으로 캠브리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두보와 이백의 한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시인 에스라 파운드(Ezra Pound), 중국문학의 대표 영어번역가였던 아서 웨일리(Arthur Waley)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초기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번역과정에서 중국시가 영어권 시로 재창조 되었다는 점이다.

시 번역에서 재창조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형식적 변형이나 일탈, 심지어는 파괴를 수반한다. 이 같은 재창조라는 방향성으로 이루어진 중국시에 대한 당시 서구의 변형 방식을 반스톤(Tony Barnstone)은 ‘흙친 자동차를 불법 정비소에 보내 완전히 분해한 다음, 다른 부품으로 갈아 끼우고 페인트칠을 다시 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2). 이 같은 번역방식의 결과물은 중국시 고유의 특징이나 형식미를 탈색하고 희석시킴으로써 서구 독자들이 읽고 있는 번역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시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서구중심의 문화번역에 기반하고 있었다. “중국시의 변별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영시의 테두리 안에서 잠식되어 ... 독자들은 영역 중국시를 읽으면서도 중국시의 타자성을 감지한다거나 원작이 중국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최홍선 2008: 265).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이며 극단적인 예로는 BC 1세기 중국 여류시인 반첩여(班婕妤, Ban Jieyu)의 시, 「Fan-Piece, for Her Imperial Lord」를 파운드가 직접 영어로 번역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일스가 1901년 원시에 충실하게 영어로 10행으로 번역했던 반첩여의 시를 중국어도 전혀 모르는 파운드가, 동양학 전공자인 페놀로사 교수의 초고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 세 줄이라는 파격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놓았다(윤희수 2013: 256-6). 번역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면서 번역과 창작의 경계선을 허물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고유성과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결여된 파운드의 중국시 영어번역 혹은 각색은, 그러나 당시 파운드의 문학적, 사회적 위상에 힘입어 ‘에이츠나 윌리엄즈, T. S. 엘리엇과 같은 당대 영어권 대표시인들의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원영희 2006: 133), 서구문학계에서 파운드를 중국시 전문가

대학교 중국어과 2대 교수를 역임하고 『중한사전』을 편찬하고 『논어』, 『장자』를 영어로 번역했으며, 1892년 웨이드 교수와 함께 최초의 중국어 영어표기법인 ‘Wade-Giles Chinese Romanization System’을 개발한 영국의 중국문학 1세대 연구자였다.

반열에까지 올려놓는데 기여했다.

두보 시에 대해 이 같은 과격한 수준의 변형적 수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영어권 문학에서 차지하는 중국시의 위상을 들 수 있다. 이븐 조하르(Even-Zohar)가 다체계이론(polysystem)을 통해 강조하듯이(1990: 45-46), 하나의 문학이 번역을 통해 다른 언어 문화권에 소개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접점을 가지게 되는 두 문학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질서와 역학관계는 번역문학이 해당 언어권에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과 번역전략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시의 영어번역 역시 이 같은 서구문학과 중국문학 사이의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문화적 위계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파운드의 중국시 영어번역이 실린 번역시집 *Cathay*가 출판된 1915년만 하더라도, 서구에서 중국문학의 위상은 낯선 동양문학에 대한 신비주의적 관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호기심의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 당시 서구문학은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치면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와 같은 기존의 표현 방법으로는 20세기 들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와 현실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과 어법에 대한 문제의식’(최유찬 2014: 518)에 천착하고 있었다. 그 같은 서구문학에게 중국 한시나 일본 하이쿠의 등장은 낯선 신선함과 시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이를 통해 사유와 표현의 방법론적 전환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당시 중국 한시의 영어권 소개는 중국 한시 자체의 시적 특징이나 미학적 가치보다는 서구 시 전통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의 차원에서 수용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파운드에게 중국 한시는 그 자체가 낯설고 신선한 시적 영감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서구에서 중국 한시 자체의 시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서구학계에서도 중국 한시가 독립적인 미학적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국 한시는 더 이상 서구 시인이나 학자들에게 신선한 방법론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학적 완성체로 가치가 구체화되었다. 이 같은 관점의 변화는 서구의 번역가들이 중국 한시 「춘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투영해주는 네 편의 영어번역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고에서 다루는 두보 시 번역은 하나의 시를 다른 언어로 재현하는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두보 시의 가치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된 관점과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두보의 「춘망」의 영어번역의 한계와 가능성

3.1 「춘망」의 특징 분석

두보의 「춘망」은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하나로 융화시킨 5언 율시로서, 두보가 46세 때인 중국 당의 황제 숙종의 지덕 2년(757년) 늦은 봄 무렵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성무 2007: 109). 「춘망」의 영어번역에 대한 분석에 앞서, 두보 시의 영어번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비교대상으로 이 시의 조선 사회의 수용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파운드의 영어번역과는 달리, 두보 한시의 조선 사회의 수용은 두보의 시에 대한 당시 조선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수용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두보의 시는 조선시대에 왕명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초간 『두시언해』는 1443년(세종 25년) 4월에 착수해서 1481년(성종 12년)에 간행된 조선의 첫 번역시집이기도 하였다(정정순 2012: 217). 다시 말해 그 당시 두보 한시의 번역은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미학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문화사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문학번역을 도착어 문화권에서 출발어 텍스트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의 결과물로 본다면, 두보 시에 대한 이 같은 관점과 번역전략은 결과적으로 도착어 문화권인 조선의 지배문화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두보 한시를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숭고한 규범과 가치로 삼아, 번역가의 해석이나 개입을 배제하는 축자역을 통해 원본의 틀과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배이데올로기 가치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통치 철학의 확립을 통한 백성 교화의 기능’(김정우 2009: 58)을 수행하고, ‘양반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적 지배 이념을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양반들의 계급적 동질성을 확고히 하려는’(정정순 2012: 219) 문화번역적 의도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두보의 시에 대한 15세기 조선의 특수한 수용 맥락과는 달리, 두보 시의 20

세기 영어번역은 훨씬 더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다양성은 두보 시를 수용했던 당시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 맥락과, 두보 시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의 미학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차이가 번역 전략의 차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번역은 궁극적으로 번역이 발생하는 두 문화사이의 문화적 역학 관계를 유동적으로 반영하는 시대적 문화번역의 결과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성공적이었던 번역전략이 그 다음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번역은 박제화된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ST>		<음역>
春望		(봄 춘 /바랄, 바라볼 망)
	杜甫	두보
國破山河在	국파산하재	(나라 국 /깨뜨릴 파 /되 산 /강 하 /있을 재)
城春草木深	성춘초목심	(도읍 성 /봄 춘 /풀 초 /나무 목 /깊을 심)
感時花濺淚	감시화천루	(느낄 감 /때 시 /꽃 화 /흘뿌릴 천 /눈물 루)
恨別鳥驚心	한별조경심	(한 한 /헤어질 별 /새 조 /깨우칠 경 /마음 심)
烽火連三月	봉화연삼월	(만날 봉 /불 화 /잇닿을 연 /석 삼 /달 월)
家書抵萬金	가서저만금	(집 가 /글 서 /막을 저 /일만 만 /쇠 금)
白頭搔更短	백두소갱단	(흰 백 /머리 두 /굽을 소 /다시 갱 /짧을 단)
渾欲不勝簪	혼욕불승잠	(흐릴 혼 /하러 할 욕 /아닐 불 /이길 승 /비녀 잠)

시 번역 분석은 무엇보다도 출발어 시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텍스트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텍스트의 분석은 무엇보다도 시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거나 작품 고유의 미학적 효과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파악과, 이 같은 주제나 효과가 번역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평가들은 유효한 번역전략을 논의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오역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수 있다.

두보의 한시 「춘망」의 영어번역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 시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1구 5글자의 8행시로 구성된 5언 율시의 형식적 정형성과 규칙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고전시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텍스트에 담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단어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가장 절제되고 집약된 형태로 표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각 행에서 사용된 다섯 글자 역시 그 같은 선택과 배제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 고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표현하지 않음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Hsieh 1994: 16)에 대한 이해와 절제된 전달이 번역에서 중요하다. 시의 정형성과 규칙성은 시인의 의도가 가장 집약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형식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또한, 형식적 정형성은 내적 구조의 정형성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두보 시에 두드러지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특징, 즉, 자연경물에 대한 묘사로 시상을 끌어내고 뒤이어 주관적 정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영주 2012: 185)이라는 구성의 특징도 번역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한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접속사나 연결사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글자 사이의 거리와 여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한시는 영어와 달리, 문법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어나 조사, 접속사, 전치사 등의 빈번한 생략을 통해, 특정인의 특정한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좀 더 보편적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Cui and Sun 2014: 14) 이 공간과 여백에 대한 고려가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시는 두보가 마흔 여섯에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직후 가족들과 헤어져 반란군 진영에 2년 정도 억류되어 있던 시기에 쓴 시로서(남정희 320) 우국충절의 마음과, 오랫동안 떨어져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서 느끼는 지식인의 안타까움과 무력함 등의 내면적 감정 표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 시의 각 행에 담겨있는 감정의 다양한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들인, 1행에서 나라의 패망을 염려하는 ‘國破’의 ‘破’(파)의 개념이나, 2행에서 풀과 나무가 우거지는 ‘深’(심), 3행에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感’(감), 4행에서 헤어짐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하는 ‘恨’(한), 5행에서 석 달 동안이라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連’(연), 6행에서 비할 데 없는 큰 가치를 의미하는 ‘萬金’(만금), 7행에서 짧아지는 머리를 가리키는 ‘短’(단), 마지막 행에서 비너조차도 지탱하지 못하는 ‘不勝’(불승) 등의 주요 감정핵심어들을 어떻게 번역으로 재현할 것인지를 선택은 이 시의 전체적

인 톤을 설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점에서 번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춘망」의 영어번역 분석

이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네 편의 번역텍스트는 각각의 텍스트마다 고유한 특징과 번역전략을 담고 있다. 아래 첫 번째 영어번역은 1992년 출판된 데이비드 맥크로(David McCraw)의 번역이다.

<TT1> Spring View³⁾

The state's sundered, alps & rivers remain;
The citadel vernates, grasses & trees deepen.
Moved by the times, flowers spurt tears;
Hating separation, a bird alarms the heart.
Signal fires - continuous three months;
Family letters- worth a myriad in gold.
My whitened hair, scratched ever shorter,
Is just about unable to support its hatpin.

맥크로의 번역(TT1)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첫째, 시의 정형성과 운율의 반복성을 고려한 ‘remain/deepen’, ‘tears’/‘months’, ‘heart/gold’와 같이 단어 끝의 자음만 반복되는 유사각운(slant rhyme)의 사용과, 1, 3, 5행 끝의 세미콜론의 반복적 사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행과 2행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접속사 ‘and’대신에 ‘&’를 사용한 것도 각 행의 길이를 최대한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8행의 길이가 두보의 5언 절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두보의 시에서처럼 번역에서도 단어 사이의 간극과 빈 공간을 연결하거나 채우는 연결사나 접속사 사용을 자제하며 여백의 효과를 남겨놓았으며, 셋째, 완성형 문장 대신에 불완전한 문장 사용을 통해 파편화된 감정과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맥크로의 번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고급 사용역이라 할 수 있다.

3) McCraw, David R (1992: 101)

‘sundered’(깨트릴 波), ‘alps’(외 山), ‘citadel’(도읍 城), ‘vernates’(봄 春), ‘spurt’(홀뿌릴 濺), ‘myriad’(일만 萬)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번역에서 일상어적 대응을 피하면서 ‘낯설게하기’의 효과를 극대화한 시도는 베누티(Lawrence Venuti)의 ‘이국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고급 사용역 전략의 의도는 두보 시에 대한 서구독자들의 쉬운 이해와 설부른 판단에 저항하면서, 서구 고전시의 심오함이나 고풍스러움을 두보 한시의 고전성과 고상함과 연결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낯설음을 통해 시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독자가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시의 형식적 특징이나 글자와 글자사이의 여백을 인지하도록 하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어번역은 1967년 출판된 데이비드 호키스(David Hawkes)의 번역이다.

<TT2> Spring Scene⁴⁾

The state may fall, but the hills and streams remain.
 It is spring in the city: grass and leaves grow thick.
 The flowers shed tears of grief for the troubled times,
 and the birds seem startled, as if with the anguish of separation.
 For three months continuously the beacon-fires have been burning.
 A letter from home would be worth a fortune.
 My white hair is getting so scanty from worried scratching that soon
 there won't be enough to stick my hatpin in!

호키스 번역(TT2)의 특징은 크게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첫째, 글자와 글자 사이의 빈 공간에 ‘but’, ‘as if’, ‘so~ that’ 등과 같이 의미를 이어주는 연결사나 접속사를 빈번하게 삽입해서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한다. 둘째, ‘have been burning’, ‘is getting’과 같은 현재완료형이나 현재진행형의 사용을 통해 시간적 흐름을 강조하면서 내용의 논리성을 부각시킨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첫째, ‘it is spring in the city’에

4) Hawkes, David (1967: 48)

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한 문장보다는 완성형 문장의 사용을 통해 지시대상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it is spring in the city’ 바로 뒤에 위치한 콜론(‘:’)은 부가적 설명 제시라는 콜론의 일반적 역할처럼, 이 시에서도 봄이 찾아온 성의 모습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grass and leaves grow thick’) 성격을 지닌다. 둘째, ‘times’ 대신에 ‘troubled times’, ‘tears’ 대신에 ‘tears of grief’에서처럼 감정 형용사 표현의 추가를 통해 내용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인과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번역텍스트의 해설적, 서술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낯선 중국 한시에 대한 서구 독자들의 경계심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적 이해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어번역은 1952년 출판된 윌리엄 형(William Hung)의 번역이다.

<TT3> Look at Spring!⁵⁾

The nation is shattered. Only the landscape remains.
 Spring in the city? Yes, unpruned trees and overgrown weeds.
 Flowers are watered with tears of discouragement,
 Birds sing heartbreaking songs of separation.
 Beacon fires of battle have been burning for months.
 A letter from home would be worth a fabulous fortune!
 As I scratch my scanty white hair, more falls;
 It is almost too thin to hold a hairpin.

형의 번역(TT3)은 첫째, 제목 ‘Look at Spring!’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다른 번역들이 제목에서 ‘春’(봄)과 ‘望’(바라봄)을 명사형으로 처리한 반면, 형의 번역은 제목을 동사형으로 처리하면서 느낌표까지 추가하는 변형을 시도했다. 이 같은 개입은 제목 번역에만 그치지 않고, ‘Spring in the city?’나 ‘a fabulous fortune!’에서와 같이 물음표나 느낌표의 두드러진 사용을 통한 번역가의 감정 이입 시도로 이어진다. 둘째, TT2 호키스의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명사로 표현된 대상을 ‘unpruned trees’, ‘overgrown weeds’, ‘beacon fires of battle’, ‘fabulous fortune’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형용사나 형용사적 표현을 추

5) Hung, William (1952: 105)

가함으로써 지시대상에 대한 번역가의 해설적, 주관적 감정 투영의 시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셋째, 첫 행 ‘The nation is shattered. Only the landscape remains.’에서 ‘only’의 삽입이나, 2행에서 ‘Spring in the city?’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Yes,~’로 대답하는 문답식 표현도 결국 두보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고려보다는 번역가의 감정이입과 전달을 우선시하는데, 이 시가 담고 있는 감정의 깊이와 폭을 전달하려는 번역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영어번역은 2002년 출판된 버튼 왓슨(Burton Watson)의 번역이다.

<TT4> Spring Prospect⁶⁾

The nation shattered, mountains and river remain;
 city in spring, grass and trees burgeoning.
 Feeling the times, blossoms draw tears;
 hating separation, birds alarm the heart.
 Beacon fires three months in succession,
 a letter from home worth ten thousand in gold.
 White hairs, fewer for the scratching,
 soon too few to hold a hairpin up.

왓슨 번역(TT4)은, 첫째, TT2나 TT3에서 볼 수 있는 묘사적, 설명적 서술 대신에, 5글자 8행 두보 시의 40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단어와 단어사이의 여백에 번역가가 개입하지 않는 절제된 감정 전달을 시도한다. 둘째, 1-4행까지는 쉽표의 규칙적인 사용을 통해 댓구 형식의 정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며, 셋째, ‘remain’과 ‘burgeoning’, ‘tears’와 ‘heart’와 같은 유사각운의 사용을 통해 운율의 정형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넷째, 결론에 해당하는 5-8행의 번역에서는 동사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상황의 역동성보다는 절제미를 통한 감정의 잔상을 강조하는 효과도 두드러진다.

이를 근거로, 앞서 언급한 각 행의 감정 핵심어들의 번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번역의 해설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변형이 많이 발생한 TT2와 TT3의 경우는 이 같은 주요 감정 핵

6) Watson, Burton (2002: 30)

심어조차 생략한 경우가 많은 반면, 시의 형식과 구성의 중요성을 고려한 TT1과 TT4의 경우는 번역가의 개입을 자제하면서 두보 시의 형식적 특징과 감정의 잔상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TT2와 TT3의 경우, 논리성이나 연결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글의 해설적 자연스러움이 두드러진 반면, 특히 7행의 ‘更短(갱단)’의 경우에서처럼 ‘다시 짧아진다’라는 의미를 번역에서 비교급의 맥락으로 처리한 TT1과 TT4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글자 하나하나의 관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돋보인다.

〈표 1〉 주요 감정 핵심어들의 번역 비교

	TT1	TT2	TT3	TT4
1행/ 破	sundered	fall	shattered	shattered
2행/ 深	deepen	grow thick	overgrown	burgeoning
3행/ 感	moved	x	x	feeling
4행/ 恨	hating	anguish	x	hating
5행/ 連	continuous	continuously	for months	in succession
6행/ 萬金	myriad in gold	fortune	fabulous fortune	ten thousand in gold
7행/ 更短	shorter	scanty	scanty	fewer
8행/ 不勝	unable to support	not be enough to stick	too thin to hold	too few to hold

두보의 「춘망」에 대한 네 편의 영어번역텍스트는 각각 옥스퍼드대학, 하와이대학,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된 두보 한시의 대표적 영어번역서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영어권 대학의 중국문학 강의실에서 이미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번역이 가지는 한계, 즉,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불충실성이나 생략, 의역, 오역논란을 넘어서 이미 두보 한시의 미학적 가치의 재생산에 다양한 방식으로 크게 기여한 정전화 텍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번역에 관한 논의에서 늘 대두되는 번역의 상대적 우열 평가나 오역 논의에서 벗어나, 각각의 번역의 특징과 의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비교관점은 이들 번역텍스트의 출판시기이다. 번역가의 감정이입이 두드러진 형의 번역(TT3)이 1952년 번역이었다면, 1967년의 호키스 번역(TT2)은 해설적 번역의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낯설음의 미학에

기반한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이 두드러지는 맥크로의 번역(TT1)은 1992년 출판되었고, 마지막으로, 두보 시의 형식과 감정의 잔상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가의 개입이 절제된 버튼의 번역(TT4)은 2002년 출간되었다는 점인데, 물론 이 같은 출판순서 자체에 지나친 자의적 의미부여는 불필요하지만 큰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르페브레(Andre Lefevre)가 지적했듯이 각각의 번역은 그 시대 도착어 문화권에서 가장 주류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 시학을 대변하게 된다는 점(1997: 67)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 번역 전략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한 언어가 다른 언어와 대면할 때 그 말의 결을 깨뜨리는 균열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만나게 된다”(황현산 2010: 292)는 관점을 통해, 시 번역의 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는 시 번역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4.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성과 번역 총체성

시 번역의 어려움은 시의 운율성, 함축성, 간결성, 상징성, 다의성과 같은 미학적 고유성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시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는(박용삼 2008: 239-240) 대부분 프로스트(Robert Frost)가 시 번역에 대해 내린 정의인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으로 귀결되곤 한다.⁷⁾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시에 대한 프로스트의 정의가 실린 대답의 제목이 시 번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의 작법(‘Conversations on the Craft of Poetry’)이라는 점이다. 즉, 시의 작법에서 유사 모음이나 동일 자

7)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는 1959년 문학평론가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 소설가 로버트 펜 워런(Robert Penn Warren), 그리고 홀트 라인하트 윈스턴(Holt, Rinehart & Winston) 출판사 편집장 케니 위더스(Kenny Withers)와의 대답에서 프로스트가 언급한 내용을 나중에 사람들이 편집한 표현으로, 프로스트가 시 운율의 중요성과 자유시에 대한 반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It is which is lost out of both prose and verse in translation’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 Fagan, Deirdre (1967: 75)

음의 반복, 두운 효과, 운율의 사용을 통해 생성되는 음성적 효과는 번역에서는 살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된 ‘번역’은 반드시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한정되기 보다는 일종의 전달과 소통이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스트가 언급한 ‘lost in translation’은 ‘언어간’(interlingual) 번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내적’(intralingual), 즉, 동일 언어 내의 ‘번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전달과 소통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한국 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어려움 없이 소통되는지의 문제와, ‘시’만 번역과정에서 ‘상실’(‘what gets lost’)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요소의 중요성이 시 만큼 강조되지 않는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번역을 통해 ‘상실’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즉, 번역의 어려움이나 불가능성은, 단순히 문학 장르간의 정도의 차이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 언어가 다른 언어나, 심지어는 같은 언어로 해석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상실의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시 번역의 불가능성 논의가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은 시와 소설의 본질적 차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즉, 독자와의 서사적 소통을 중시하는 소설과는 달리, 시는 작가 자신과의 내면적이고 개별적인 대화를 그 어느 가치보다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시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며 암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시인도 자신의 고유한 내면의 목소리인 시가 독자들에게 한 눈에 쉽게 읽히고 이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명시성, 객관성을 목표로 하는 시 번역은 결국 시의 본질을 거스르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

두보의 한시 「춘망」의 네 편의 영어번역 역시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울타리라는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두보의 동일한 텍스트를 읽어내는 네 가지 다른 관점과 방법의 유의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들 네 편의 영어번역본에 대한 우열평가보다는 각각의 번역이 가지는 의도성과, 이를 위해 사용된 번역전략, 그리고 번역을 통해 재현된 고유한 가치와 효과에 대한 분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각각의 번역은 그동안 번역학에서 논의된 다양한 번역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한데, 각각의 번역의 의도나 방향의 차이가 결국 이 같은 번역의 차이

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김소월이 한국어로 번역한 두보의 「춘망」역시 시 번역의 내면성과 개별성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하나의 시적 총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개별 시 번역의 개인적, 주관적 다양성을 보여준다.⁸⁾

시 번역에서 원본에 대한 단일한 번역본의 관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선택은 어쩌면 번역에서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병치시키는 것과 같은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네 편의 번역도 소통과 재현의 측면에서

8) 아래의 시 「봄」은 두보의 「춘망」을 시인 김소월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시인 김사인이 “두보가 조선 사람으로 되살아와 다시 쓴다 해도 어설피 살아와서는 결코 이르기 어려울 비애와 처절의 극한을 성취하고 있다”(2013: 30)고 극찬을 한 번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의 극대화를 고려한 형식적 변형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의 표현 추가 등으로 인해 “김소월의 창작시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원시와는 상당히 다른 의장을 갖춘”(정정순 2012: 21) 번역시로도 평가받는다.

봄

김소월

이 나라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산천 여태 산천은 남아 있더나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에 뿐이어

오! 서럽다 이를 두고 봄이나
치위라 꽃잎에도 눈물뿐 흠으며
새 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못 보느냐 별갈게 솟구치는 봉숫불이
끝끝내 그 무엇을 태우려 함이리오
그리워라 내 집은
하늘 밖에 있나니

애달다 굶어 쥐어뜯어서
다시금 째아졌다고
다만 이 희끗희끗한 머리칼뿐
이제는 빗질할 것도 없구나

각각의 한계와 ‘상실’을 경험하지만, 이 네 편의 번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척점으로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총체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시 번역의 ‘불가능성’ 담론은 시 번역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번역텍스트들 속에서 번역의 내면성과 개별성이 축적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그 결과, 하나의 개별 번역이 그려내지 못하는 출발어 텍스트의 총체성을 담아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시 번역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사인 (2013) 『시를 어루만지다』, 서울: 출판사 b.
- 김성조 (2012) 「한국 현대시의 난해성과 도피적 상상력: 1950년대 김수영·김춘수·김중삼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9: 137-162.
- 김정우 (2009) 「조선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 『번역학연구』 10(1): 33-63.
- 남정희 (2006) 「한시 번역의 시학적 검토」, 『반교어문연구』 20: 311-336.
- 이윤주 (2010) 「당신은 시를 읽으십니까」, 『주간한국』 2318호 (2010년 4월 13일): 14-23.
- 박용삼 (2008) 「번역은 번역인가?—시 번역의 번역학적 접근」, 『독일문학』 108: 237-255.
- 원영희 (2006)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27-149.
- 윤희수 (2013) 「전유로서의 번역: 에즈라 파운드의 한시 번역과 이미지즘의 상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49: 255-278.
- 이영주 외 (2012) 『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정순 (2012) 「맥락적 지식 중심의 한시 교육 — 두보의 <춘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3: 203-226.
- 정한용 (2006) 『세기말, 시의 미래』, 『울림과 들림』, 서울: 문학의 전당.
- 최유찬 (2014) 『문예사조의 이해』, 서울: 작은책방.
- 최홍선 (2008) 「타자를 향한 번역—에즈라 파운드의 『중국』(Cathay)과 중국시

- 영역(英譯)], 『비교문학』 44: 265-29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 용어사전』 하권, 서울: 국학자료원.
- 한성무 (2007) 『두보평전』, 김의정 역, 서울: 호미.
- 황현산 (2000) 「말라르메의 시집을 번역하며」, 『대산문화웹진』 3(2000년 12월), 2015년 9월 15일 검색. Available at
 <<http://www.daesan.or.kr/webzine/sub.html?uid=856&ho=34>>
- 황현산 (2010) 「번역과 시 — 외국시의 모국어체험」, 『불어불문학연구』 82: 285-314.
- Barnstone, Tony (2005) ‘The Poem behind the Poem: Literary Translation as American Poetry’ in Frank Stewart (ed) *The Poem Behind the Poem: Translating Asian Poetry*. Port Townsend, WA.: Copper Canyon Press, 1-16.
- Cui, Ying, and Jilin Sun (2014) 「Presentation of Poetic Space in Chinese Classical Poetry and its English Translation: A Case Study」, 『번역학연구』 15(4): 7-27.
- Even-Zohar, Itamar (199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45-51.
- Fagan, Deirdre (1967) ‘Conversation on the Craft of Poetry (1959)’, *Critical Companion to Robert Frost: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74-77.
- Hawkes, David (1967) *A Little Primer of Tu Fu*. Oxford: Clarendon Press.
- Hsieh, Daniel (1994) ‘Du Fu’s ‘Gazing at the Mountain’’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16: 1-18.
- Hung, William (1952) *Tu Fu: China’s Greatest Poet*.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 Lefevere, Andre (1997) ‘Translation and the Creation of Images, or ‘Excuse Me, Is This The Same Poem?’ in Susan Bassnett (ed) *Translating Literature*. Cambridge: D. S. Brewer, 64-79.
- McCraw, David R (1992) *Du Fu’s Laments from the Sout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atson, Burton (2002) *Selected Poems of Du Fu*.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bstract]

**On a Paradox of the Impossibility of Poetry Translation: English
Translations of Tu Fu's *Spring Prospect***

Lee, Hyung-ji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oblem in translating poetry often derives from poetic abstruseness, such as meter, implication, conciseness, symbolism, polysemy. These complexities inevitably hinder poetry's approach to general readers, and eventually trigger a heated debate between translatability and untranslatability.

Spring Prospect, a famous poem by Tu Fu, a prominent Chinese poet of Tang Dynasty, has been continuously translated into English. While each translation, analyzed in this paper—the alienating nature of McCraw's translation, explicative nature of Hawkes', emphatic nature of Hung's, and much refrained and controlled nature of Watson's—falls short of a full-fledged picture of Tu Fu's poem,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multiple versions of translation leads to a deeper and wider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poem.

While novel intends to search for narrative communication with readers, poetry prioritizes an introspective dialogue with poet, which would result in more personal, implied reading. Thus, the English translations of Tu Fu's poem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rioritizing the value of multiplicity in its approach, and this is the very juncture where translatability of poetry could be revived.

▶ Key Words: Tu Fu, *Spring Prospect*, Chinese poetry, English translations, poetry translation, translatability, cultural translation

이형진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jinlee@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